

로봇이 송아지에게 젖을 먹인다

- 과제명 : IT기술을 활용한 로봇 포유기 개발
- 담당 : 낙농과 이현준 041-580-3395

어미소처럼 2시간마다 젖을 준다

자연상태에서 송아지는 2시간마다 젖을 먹지만, 지금까지 농장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하루에 2회 정도 송아지에게 젖을 먹였다. 따라서 송아지는 늘 배가 고파 과식을 하게 되어 급체, 장염, 설사 등에 걸리는 등 성장과 발육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. 이에 우리 원은 송아지의 발육과 영양상태에 따라 젖 먹는 양과 시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했다. 로봇의 이름은 '송아지 유모(Calf U-MO)'이다.

'송아지 유모'는 2시간마다 조금씩 젖을 먹는 송아지의 생리에 맞추어 최적의 영양상태와 발육을 도울 수 있다. '송아지 유모'의 젖꼭지는 보통 때는 숨어 있

다가 송아지가 다가오면 나타나고, 정량을 다 먹으면 다시 숨어버려 과식이나 급체를 방지할 수 있다. '송아지 유모'는 축산기술에 첨단 IT기술이 집목된 사례로, 인력과 시간의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

송아지의 발육과 영양상태에 따라 젖 먹는 양과 시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인공지능 로봇 '송아지 유모'

